

일본 경제 동향_2015년 11월

(GDP 600조엔 달성 대책)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답보상태 지속	2
2. 7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	6
3. 엔저·고주가·저금리	9
4. 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	11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GDP 600조엔 달성 대책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7
1. 대일 무역적자 2개월 연속 증가	17
2.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	20
V. 참고 자료	21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1
2. 주요 경제 일정	23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3	2014	2015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113.1	112.2	111.9*	-
GDP증가율(연율,%)	1.6	△0.1	4.5	-1.2(p)	△0.8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6.0	69.5	20.4	16.1	17.2	-		
	공공투자	23.0	24.5	7.2	4.7	5.8	-		
해외직접투자(조엔)	13.2	12.6	3.5	3.7	3.6	1.1	1.3	1.2	-
소비자물가 상승율(%)	전기비	0.4	2.6	△0.3	0.2	0.0	0.0	0.0	-
	전년동기비	0.4	2.6	2.1	0.1	△0.1	0.0	△0.1	-
실업율(%)	4.0	3.6	3.5	3.3	3.4	3.3	3.4	3.4	-
수출(조엔)	69.8	73.1	18.9	18.8	19.0	6.7	5.9	6.4	6.5
수입(조엔)	81.3	85.9	20.4	19.1	20.0	6.9	6.5	6.5	6.4
무역수지(조엔)	△11.5	△12.8	△1.4	△0.3	△1.0	△0.3	△0.6	△0.1	0.1
경상수지(조엔)	3.3	2.6	4.2	3.8	5.0	1.8	1.7	1.5	-
환율	달러	97.7	105.8	119.1	121.4	122.3	123.2	123.2	120.2
	원화(100엔)	1,123	996	923.3	905	957	927	958	986
금리(10년물,%)	0.72	0.55	0.34	0.40	0.395	0.44	0.38	0.36	0.31
주가(닛케이)	13,651	15,460	18,226	20,058	19,474	20,373	19,919	17,944	18,374

주: (p)는 1차 속보치 *는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 담보상태 지속

- ‘15.9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1.9로 전월비 0.3p 하락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4개월 연속 제자리

- ‘15.9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7개월 만에 1,115억 엔 흑자로 반전

- ‘15.10월 수출은 6조 5,440억 엔, 수입은 6조 4,325억 엔

□ (환율) 120엔대 방어

- ‘15.10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20.1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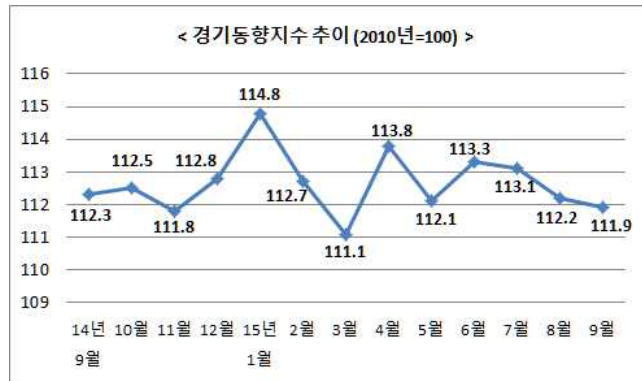
* ‘15.10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56원으로 전월비 3.0% 엔저·원고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담보상태 지속

□ (경기기조 판단)

-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감속 리스크로 투자의 신중세가 견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의 담보상태가 지속
- 일본 내각부가 11월 6일 발표한 9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는 111.9로 3개월 연속 하락
- 일치지수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중 5개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중소기업 출하와 소매 판매 관련 지표가 저조



자료 : 내각부

- 이에 따라 일본 내각부의 경기 기조판단도 4개월째 담보상태 유지

□ (전 망)

- GDP가 2분기와 3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4분기에는 소비의 회복으로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확실성 내지는 리스크도 만만치 않음
- 중국 경기의 회복여부가 관건으로 수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설비투자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가 확산되는 경우, 세계경제의 저성장 리스크는 그만큼 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관측
- 수개월 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비 2.1p 하락한 103.5로 2개월 연속 악화
- 현재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기업수익과 고용의 호조가 중국경제의 감속 영향에 얼마나 버티어낼 수 있느냐가 향후 경기향방에 관건

<GDP>

□ '15.3분기 GDP 성장률 -0.8%, 2분기 연속 마이너스

- 일본 내각부가 11월 16일 발표한 2015.3분기 실질 GDP(속보치)성장률은 전기비 -0.2%, 연율 환산 -0.8%로 연율 -0.7%였던 2분기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
- 세계경제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함에 따라 설비투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
 -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기비 1.3% 감소, 2분기 이후 마이너스폭이 0.1%p 확대
 - 8월 중국발 세계적인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기업 심리의 약화로 계획 중인 설비투자를 보류함에 따라, 기계설비의 교체나 신축 등을 위한 투자가 부진
- 소비와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투자의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
 - 소비는 전기비 0.5% 증가, 2분기 만에 플러스
 - 금년 여름 폭서로 에어컨과 여름의류 등의 판매가 증가한 외에 대형 연휴를 이용한 여행, 외식 등 서비스 소비도 활발
 - 상품·서비스의 수출은 2분기 만에 증가로 반전, 전기비 2.6% 증가
 - 중국과 대아시아 수출은 부진한 반면, 구미지역에 대한 수출이 상승세
 - 그러나 수량기준으로는 세계경제의 감속영향으로 모든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
-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GDP를 전기비 0.3% 떨어트림에 따라, 아베노믹스 등장 이후 일본 경기를 지탱해온 내수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음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전기비	1.6	△0.1	1.2	△2.0	△0.3	0.3	1.1	△0.2	△0.2
전기비연율			4.7	△7.7	△1.1	1.2	4.6	△0.7	△0.8
전년동기비			2.4	△0.4	△1.4	△0.9	△0.8	1.0	1.0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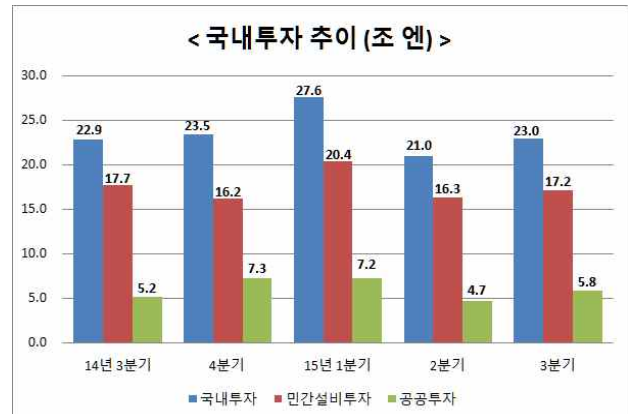
<국내 투자>

□ ‘15.3분기 국내투자 23조엔으로 GDP의 18.8%

- ‘15.3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10.5% 증가한 23.0조엔으로 GDP의 18.8%

□ (민간설비투자)

- ‘15.3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7.0% 증가한 17.2조엔, 국내투자의 74.8%를 차지
- 최근 예상밖의 중국경제의 감속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보류 움직임이 확산



- 설비투자의 공급 측 통계인 9월 자본재 출하지수가 전월비 1.8% 감소

- 그러나 일본은행의 9월 단판에 의하면 2015년도 대기업/전산업의 설비투자계획은 전년도 대비 10.9% 증가, 6월 조사시에 비해 상향수정

- ‘15.9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도 전월비 4.6% 증가, 4분기에는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공투자)

- ‘15.3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22.7% 증가한 5.8조엔으로 국내투자의 25.2%를 차지
- 그러나 ‘15.3분기 실질 공공투자는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감소됨에 따라 0.3% 감소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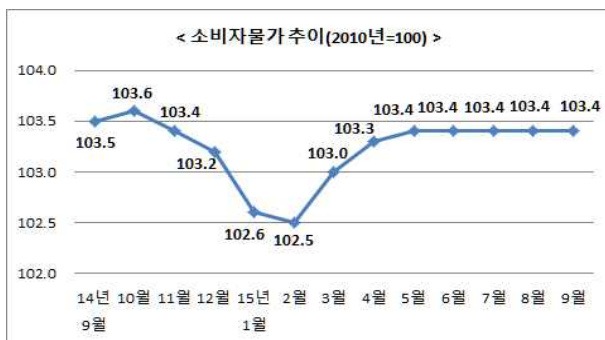
□ ‘15.9월 소비자물가 4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

- ‘15.9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전월과 같은 103.4로 4개월 연속 0.0%
 -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율도 전월과 같은 -0.1%
 -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에너지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데 기인
- 그러나 일본은행은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상승기조에 있다고 보고, 추가 금융완화를 보류
- 앞으로 에너지 가격의 하락폭 축소와 함께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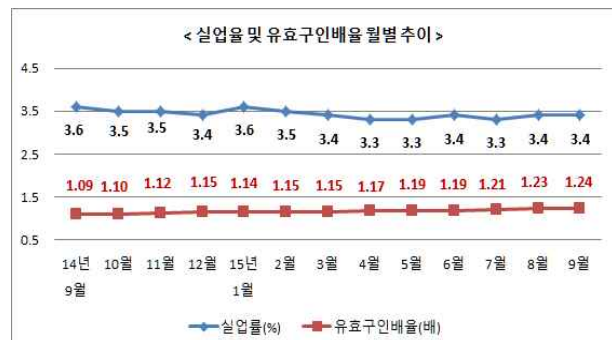
<실업률>

□ 고용사정의 개선경향 지속

- ‘15.9월 완전 실업률은 3.4%로 전월과 같은 수준
 - 의료복지 분야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감소
 - 남성 실업률은 3.6%로 상승한 반면, 여성 실업률은 3.1%로 하락
- 유효구인배율도 상승세 지속
 - 15.9월 유효구인배율은 1.24배로 전월보다 0.01p 상승, 2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
- 일본 총무성은 고용사정의 개선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적자 7개월 만에 흑자

□ (총 합) 무역수지 1,115억 엔 흑자로 반전

- ‘15.10월 무역수지는 1,115억 엔 흑자로 전월의 1,145억 엔 적자에서 크게 반전
- 무역흑자는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입의 감소가 이에 기여
- 對 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7,301억 엔에서 5,396억 엔으로 축소된 한편, 對 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6,618억 엔에서 6,662억 엔으로 확대

< 2015년 10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6.4	0.6	9.1	6.5	-2.1	2.0	63.3	5.5
수 입	6.5	-11.1	1.3	6.4	-13.4	-1.5	65.9	-7.6
수 지	-0.1	-88.1	-80.0	0.1	-	-	-2.6	136.3

자료 : 재무성

□ (수 출) ‘15.10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5.10월 수출은 6조 5,440억 엔으로 전월비 2.0% 증가, 증가폭은 전월의 9.1%보다 둔화됨
- 전년 동월비로는 2.1% 감소
- 수출물량도 전월비 3.1% 증가, 전년 동월대비로는 4.6% 감소
- 앞으로 중국경제의 감속 등 리스크는 있으나 미국과 유럽 등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철강, 원동기기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과학광학기기 대신 원동기가 포함
- 자동차부품과 자동차, 원동기의 수출은 증가
-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철강의 수출은 감소

< 2015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11,018	7.6	28.5	11,207	10.4	1.7	98,132	10.7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613	8.5	6.6	3,435	0.8	-4.9	33,149	8.8
3	자동차부품	2,972	-1.3	14.7	3,085	-4.4	3.8	28,948	0.9
4	철강	2,890	-17.0	-1.3	2,864	-17.3	-0.9	31,342	-4.0
5	원동기	2,151	5.1	20.0	2,205	-3.5	2.5	21,673	4.4

자료 : 재무성

- 주요 수출상대 지역·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 수출이 전월보다 증가
 -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전월비 6.3%로 가장 크고 이어 EU, 미국, 대만, ASEAN, 한국 순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0.8% 증가

< 2015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미국	12,790	10.4	12.6	13,482	6.3	5.4	126,403	14.5
2	중국	11,139	-3.5	4.7	11,846	-3.6	6.3	110,154	0.5
3	ASEAN	9,572	-0.6	5.5	9,796	-4.3	2.3	97,970	7.7
4	EU	6,821	5.1	14.6	7,189	5.4	5.4	65,972	5.1
5	한국	4,357	-7.5	3.9	4,392	-8.0	0.8	45,232	1.1
6	대만	3,611	6.7	-2.2	3,771	-1.6	4.4	37,387	7.2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5.10월 수입도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5.10월 수입은 6조 4,325억 엔으로 전월비 1.5% 감소로 반전
 - 전년 동월비로는 유가하락으로 감소폭이 13.4%로 전월보다 커짐
 - 수입물량도 전월비 1.6% 감소, 전년 동월비로는 3.8% 감소
 - 경기부진이 수입물량 감소의 주된 요인

-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통신기, 의류·동부속품, 의약품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반도체 등 전자부품 대신 의약품이 포함된 가운데,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감소
- 수입 감소 품목 중 의류·동부속품의 수입 감소폭이 전월비 -19.3%로 가장 크고 이어 액화천연가스, 원유, 통신기 순
- 5대 수입품목 중 유일한 수입증가 품목인 의약품은 40.6%의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

< 2015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6,376	-43.7	-16.6	5,475	-49.2	-14.1	64,695	-39.6
2	액화천연가스	4,162	-32.4	0.3	3,570	-42.4	-14.2	43,671	-24.5
3	통신기	3,558	-6.5	103.7	3,429	-1.6	-3.7	21,212	14.2
4	의류·동부속품	3,904	4.2	13.2	3,150	-7.3	-19.3	25,557	6.8
5	의약품	1,950	-1.6	-32.2	2,742	43.7	40.6	23,058	22.6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별로는 EU, 미국,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중국, 호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 수입증가폭은 EU로부터의 수입이 13.6%로 가장 큰 반면, 수입 감소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5%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2.4% 감소

< 2015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8,439	0.9	19.0	17,242	-5.2	-6.5	145,494	-7.4
2	ASEAN	9,715	-4.2	4.0	9,961	-1.2	2.5	89,672	-11.2
3	EU	6,748	-3.5	-12.2	7,665	8.7	13.6	62,540	-8.1
4	미국	6,172	-0.1	-8.2	6,820	1.0	10.5	54,991	-12.1
5	호주	3,243	-22.8	-7.0	3,104	-23.9	-4.3	31,954	-24.3
8	한국	2,615	-8.7	4.2	2,552	-16.6	-2.4	24,491	-16.0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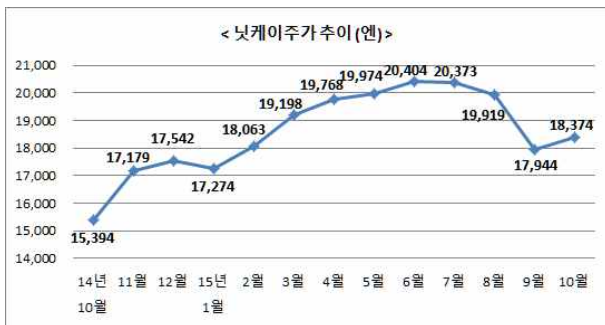
3.엔저 · 고주가 · 저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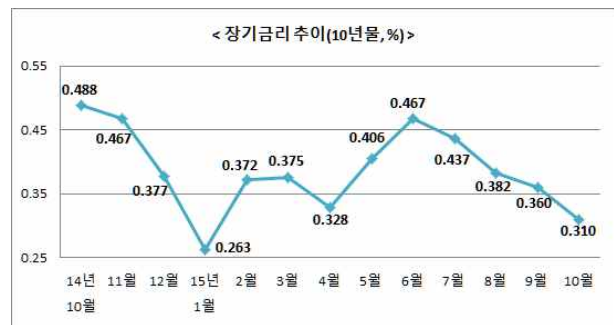
- ‘15.10월 평균 주가는 미국과 유럽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전월비 2.4% 상승한 18,374엔
- 11월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져 11월 24일 기준 19,925엔

□ (금 리)

- ‘15.10월 평균 10년 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의 장기금리하락 영향으로 전월비 13.9% 하락한 0.31%
- 11월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져 11월 19일에는 0.295%까지 하락, 24일 기준 0.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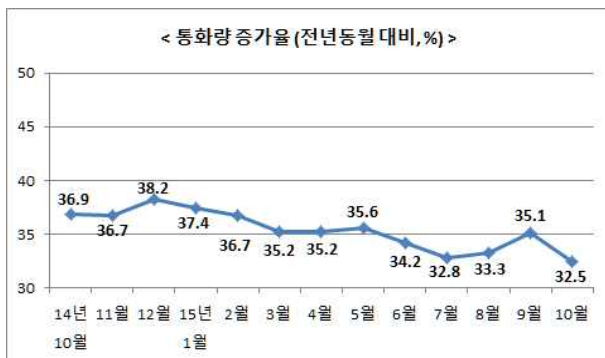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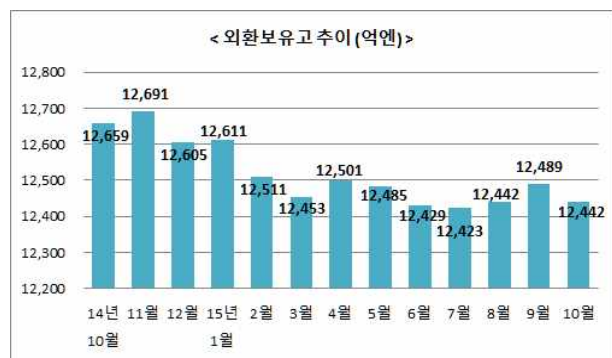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5.10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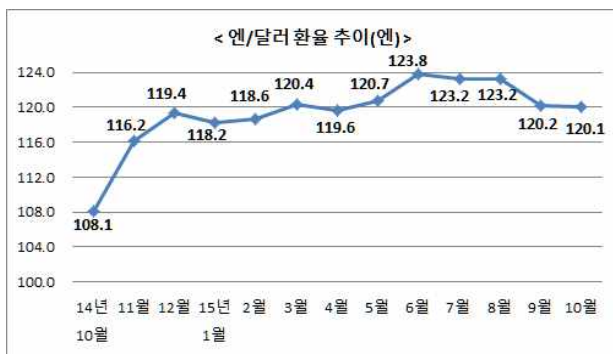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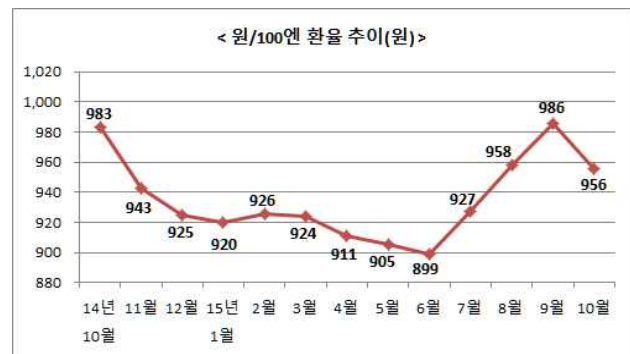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5.10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0.1% 하락한 120.1엔(엔고)
- 11월 들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예상으로 엔저세로 반전, 11월 19일 기준 122.75엔
- 엔·달러 환율의 변동 폭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미일의 금융정책인데, 금년 중으로 미국금리의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가 이루어진다면 125엔 이상의 엔저도 가능함
-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은 매우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현 시점에서 일본정부에서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또 일본 은행도 환율이나 주가가 안정되어있기 때문에 추가금융완화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125엔대 이상의 엔저는 예상하기 어려움
- ‘15.10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56원으로 전월의 986원에 비하 여 3.0%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

□ **(동향)** 투자규모가 큰 아시아 및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감소가 주된 원인

○ '15년 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2,385억 엔으로 전월비 8.0% 감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3	2014	2015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금 액		131,946	125,929	10,023	20,757	6,223	11,399	13,457	12,385
증가율	전기비	34.9	-4.6	8.4	107.1	-70.0	83.2	18.1	-8.0
	전년동기비	34.9	-4.6	-51.3	177.1	-11.4	39.6	112.5	78.4

자료 : 일본 재무성

□ **(지역별)** 對 아시아·북미 투자는 감소한 반면, 對 유럽·대양주 투자는 감소

○ 對 북미, 對 미국 투자는 각각 전월비 3.7% 및 2.2% 감소

○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6.2% 감소했으나 對 한국, 對 중국 투자는 증가

- 對 한국 투자는 전월비 151.3%의 큰 폭 증가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2014년		2015.8월			2015.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25,939	-4.6	13,457	18.1	112.5	12,385	-8.0	78.4
아시아	37,617	-4.3	4,256	-6.0	74.6	3,993	-6.2	4.1
중 국	7,150	-19.3	651	-15.0	27.9	707	8.6	1.3
한 국	3,328	3.7	74	-83.4	-72.3	186	151.3	-38.6
북 미	46,264	1.2	5,498	367.5	157.2	5,292	-3.7	390.5
미 국	44,365	3.3	5,274	361.4	187.1	5,126	-2.2	416.7
중남미	7,710	-22.1	1,415	21.0	41.1	305	-78.4	-75.9
유 럽	26,310	-16.7	1,922	-50.8	170.7	2,277	18.5	505.6
대양주	5,963	1.2	300	14.5	-	467	55.7	171.5
중동	527	-	97	-1.0	273.1	39	-59.8	-64.9
아프리카	1,539	205.4	-30	-	-	101	-	-3.8

자료 : 일본 재무성

□ **(특이점)**

○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가속화, 2015년 11월 9일까지의 시점에서 매수총액이 10조 44억 엔으로 9년 만에 과거 최고를 갱신

- 해외 성장시장을 겨냥한 금융 및 물류 관련 일본 내수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형 M&A, 엔저에 따른 엔화환산 금액의 증가가 매수액 증가로 이어짐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GDP 600조엔 달성 대책

- 新아베노믹스의 핵심인 GDP 600조 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책정한 구체적인 정책의 원안이 밝혀짐
- 11월 4일 경제재정자문회의가 新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강한 경제」의 원안으로서 제언한 것임
- 일본정부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2016년 봄 발표예정인 「1억총활약」 플랜에 반영키로 함

① 골 자

- 일본의 GDP를 2014년도 491조 엔에서 2020년경까지 600조 엔으로 110조 엔 정도 늘림
- 이중 60조엔 이상을 현재 1%에 미치지 못한 잠재성장률을 2%정도로 높임으로써 충당하고, 나머지 50조엔 정도는 임금·물가 상승과 유가하락에 의한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에 TPP를 수요, 공급 면에서 新아베노믹스의 기대효과를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활용

② 주요 내용

1) 新아베노믹스의 전망

- 민간수요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 2%, 명목 3%정도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600조 엔 경제를 실현
- 실질 경제성장률은 공급력을 강화함으로써 종래 1%이하의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높임

- 동시에 「1억총활약」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TPP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수요를 개발
- 디플레이션에 적극 대처하고 교역조건 개선 등을 통하여 이제까지는 1% 정도로 상정한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1% 이상으로 전망

2)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책

- 명목 GDP증가율을 상회하는 설비투자 촉진
 - 법인세 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기업수익이 확실하게 투자로 이어지도록 함
 - 제 4차 산업혁명과 COP21(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한 에너지절약 강화
 - 에너지절약 대응투자 촉진
 - 규제개혁에 의한 민간기업의 투자기회 확대
- GDP(명목)성장률 등 경제동향을 고려한 지속적인 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을 실현
 - 수익상황을 고려한 2015년 겨울상여금 인상
 - 2016년 봄 임금교섭을 위한 경영방침 설정
 - 노사교섭에 입각한 2016년 최저임금 인상
- 여성·청년·고령자(500만명 고용 촉진)
 - 여성·청년의 정규화 지원, 다양한 근로방식 촉진(워크라이프밸런스 개선 등)
 - 관민협력에 의한 여성의 활약을 위한 배우자공제·배우자 수당에 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함
- 고령자 고용을 촉진
 - 65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2015년, 72.5%)을 높임

- TPP를 축으로 한 강한 경제구조 구축
 - 高생산성기업으로의 노동이동 촉진
 -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위한 투자촉진
 - 농업의 기업경영화, 농지집약화를 가속(농지중간관리기구 추진, 농지세제 활용)
 - 아태 지역의 광역FTA(한중일 FTA, RCEP, FTAAP), 일본·EU FTA 추진
- 내외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보틀넥 해소 목표를 명시(숙박시설, 교통접근성, 수용체제 등)과 그 실현을 위한 관민협력에 의한 하드·소프트 인프라 강화(관민펀드, PPP/PFI 등의 민간투자기법을 활용)
 - 관광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응

3) 新아베노믹스의 기대효과

- 강한 경제, 양육 지원, 사회보장 등 3개의 화살로 구성된 新아베노믹스는 수요, 공급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GDP 600조엔 달성에 대한 플러스효과를 기대

(1) 공급측면

-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의 마이너스 기여를 플러스로 유지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에 의해 노동력인구를 500만 명 정도 확대
 - 노동참가 등이 진전되지 않은 경우 2020년까지 400만 명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생산성(TFP)상승률의 가속
 - 제 4차 산업혁명, 산업·기업의 신진대사, 전문 인력투자, 규제개혁 등에 의한 생산성(TFP)의 가속화
 - TPP에 따른 低생산성기업으로부터 高생산성기업으로의 노동이동(자원재배분)에 의한 생산성 향상

○ 자본스톡의 증가

- 법인세개혁의 조기완료, 기업수익 증가에 의한 투자증가
- 성력화·에너지절약·환경대응투자 증가

(2) 수요측면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세출개혁을 통한 공공서비스·관련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 증가

- 육아(0.3~1.5조 엔 정도), 간병(6~8조 엔), 건강증진·예방(2~5조 엔 정도)

○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증가

- 임금인상이 명목GDP만큼 증가하는 경우, 소비도 60조 엔 증가

○ TPP 발효에 의한 수출증가 등(현행 목표와 실적)

- 농수산물 수출 1조엔(2014년, 6,117억 엔)
- 신칸센 등 인프라 수출 30조엔(2010년, 10조 엔)
- 잠재력과 의욕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의 수출 2배(2010년, 3.7조 엔)
- 대내직접투자잔고를 35조 엔으로 배증(2012년, 178조 엔)

○ 방일 외국인 소비 확대

- 방일 외국인수 : 1,341만 명(2014년)→ 3,000~4,000만 명 정도(2020년)
- 방일외국인소비액 : 2조 엔(2014년)→ 7~10조 엔 정도(2020년)

○ 2020년 동경올림픽 관련 수요증가

- 개최 시까지 총 10조 엔 이상의 건설투자 증가
- 기업이 보유한 현금·예금 등을 활용한 경제선순환 확대
 - 현금·예금 등에 대한 캐쉬아웃 비율을 중기적인 평균수준까지 높임으로써 10조 엔 이상의 설비투자 확대

③ 평가

- 첫째, 노동력공급 확대와 함께 잠재성장률을 가장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TPP임
 - TPP에 의한 시장통합의 효과로 일본기업의 생산성이 상승
- 둘째, 법인세 개혁을 빠른 시기에 실시하는데 더하여, 기업수익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급 면에서의 플러스 효과를 예상
 - 10조 엔 이상의 설비투자 확대를 목표로, 법인실효세율을 빠른 시기에 20%대로 인하함으로써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투자환경을 정비
- 수요 측면에서는 임금이 일본정부의 성장률 목표(명목 3%)만큼 증가하는 경우 소비가 60조 엔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시산
- 위와 같은 제언 내용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전체나 예상이 많아 실현성에 대한 의문도 있음
- 특히 앞으로 5년 정도로 GDP를 100조 엔 이상이나 늘리는 목표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음
 -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칸센 수출에서 중국에 패하는 등 인프라 수출이 최근 정체기미를 보이고 있어, 5년 동안 3배로 늘리는 전략은 현실성이 떨어짐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2개월 연속 증가

□ (중 합)

- ‘15.10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비 41백만 달러 증가한 1,703백만 달러
 - 적자폭은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확대
-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7%에서 4.9%로 높아진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0.7%에서 10.5%로 낮아짐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3%에서 7.5%로 상승

< 2015년 10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043	-24.4	7.6	2,147	-25.7	5.1	21,508	-21.2
대일 수입	3,705	-21.1	7.0	3,850	-16.7	3.9	38,799	-13.7
무역 수지	-1,662	-330	96	-1,703	-27	41	-17,291	-384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5. 10월 대일 수출은 전월비 5.1% 증가, 2개월 연속 증가
 - 동 기간 중 총수출 증가율 -0.1%, 일본의 수입증가율 -1.5%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5. 9월	-24.4	7.6	-8.4	12.0	-11.1	1.3
2015.10월	-25.7	5.1	-15.9	-0.1	-13.4	-1.5
2015.1-10월	-21.2	-	-7.6	-	-7.6	-

○ ‘15.10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품목별 순위만 변동

- 대일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의 증가폭이 42%로 가장 높고 이어 수송기계, 농산물, 철강제품, 전자부품 순으로 증가폭이 큼
- 대일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금속광물의 감소폭이 -17.0%로 가장 크고 이어 석유 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정밀화학제품, 기계요소공구·금형 순으로 감소폭이 큼

< 2015년 10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 목 명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2,043	-24.4	7.6	2,147	-25.7	5.1	21,508	-21.2
1	광물성연료	308	-50.3	6.9	283	-48.5	-8.1	2,942	-48.0
2	철강제품	247	-22.5	3.8	257	-23.2	4.0	2,492	-27.2
3	전자부품	180	-4.3	-3.2	181	-8.9	0.6	1,924	-4.8
4	산업용전자제품	112	-43.4	27.3	159	-48.9	42.0	1,936	-16.6
5	정밀화학제품	122	-4.5	-4.0	114	-9.2	-6.6	1,201	-4.9
6	수송기계	100	2.3	23.5	111	-14.7	11.0	1,014	-6.2
7	석유화학제품	101	-23.7	9.8	86	-42.8	-14.9	1,119	-20.0
8	농산물	74	-11.2	1.4	82	-18.3	10.8	815	-11.2
9	기계요소공구·금형	80	-8.9	14.3	78	-22.3	-2.5	788	-17.2
8	금속광물	94	-16.7	-9.6	78	-23.1	-17.0	877	-5.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5. 10월 대일 수입도 전월비 3.9% 증가, 2개월 연속 증가

- 총수입 증가율 6.4%에 비하여 대일수입증가율은 낮은 편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5. 9월	-21.1	7.0	-21.8	-1.1
2015.10월	-16.7	3.9	-16.6	6.4
2015.1-10월	-13.7	-	-16.6	-

○ '15.10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도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순위만 변동

- 대일 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정밀기계의 증가폭이 38.2%로 가장 크고, 이어 산업기계, 기초화학제품, 철강제품, 정밀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순으로 증가폭이 큼

- 대일 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수송기계의 수입 감소폭이 -16.7%로 가장 크며, 이어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순으로 감소폭이 큼

< 2015년 10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 계	3,705	-21.1	7.0	3,850	-16.7	3.9	38,799	-13.7
1	전자부품	590	-4.6	17.3	502	-21.1	-15.0	5,138	-3.8
2	철강제품	430	-39.2	-4.2	487	-29.1	13.3	4,928	-30.2
3	정밀화학제품	313	-11.6	4.7	347	-3.5	10.9	3,202	-11.3
4	석유화학제품	347	-42.4	-4.7	347	-34.0	0.0	4,069	-20.3
5	기초산업기계	273	-7.5	22.4	322	2.3	17.9	2,685	-9.0
6	산업용전자제품	223	2.0	22.5	211	-10.9	-5.4	2,141	-10.4
7	정밀기계	152	-12.4	-12.1	210	11.8	38.2	2,272	14.2
8	산업기계	167	-16.3	26.5	205	6.9	22.8	1,740	-12.9
9	플라스틱제품	190	-21.1	4.4	194	-18.8	2.1	1,955	-18.6
10	수송기계	215	-1.0	35.2	179	-19.4	-16.7	2,027	-3.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

□ (동 향) ‘15.3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의 감소로 반전

- ‘15.3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222백만 달러로 전기비 67.5% 감소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의 감소폭 17.2%를 크게 상회
 - ‘15.1~3분기 누계로도 전년동기비 27% 감소
 - 건수로도 전기비 20.2% 감소
 - 전분기의 급증(136.7%)반작용도 급감 반전에 영향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3년		2014		2014.4분기		2015.2분기		2015.3분기		2015.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352 (21.3)	2,488 (-7.5)	103 (45.1)	850 (73.8)	84 (-0.2)	684 (136.7)	67 (-20.2)	222 (-67.5)	236 (-5.2)	1,195 (-27.0)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2,463 (-5.6)	19,003 (30.6)	746 (32.5)	4,185 (-6.7)	742 (33.0)	5,316 (49.5)	624 (-15.9)	4,399 (-17.2)	1,924 (12.1)	13,270 (-11.1)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한·일 기업간 협력 사례)

- 친환경 소재 바이오플라스틱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인 일본의 ERI사가 1,500만 달러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5년 말부터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설을 건립할 계획(2015.10.26. 한국일보)
- 일본 테이진그룹이 1600만 달러를 증액투자, 아산시에 위치한 공장 부지에 2차전지 분리막 특수코팅 생산 공장을 추가 건설, 무로후시제작소도 500만 달러를 투자해 천안5외투단지에 4960m² 규모의 생산 공장을 추가 건설(2015.10.14. 중도일보)

□ (시사점)

-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 등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
 - 최근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도 대한투자의 플러스 요인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5.10월~2015.11월)

□ 국내 기관

- 『차세대 자동차 혁신 트렌드와 일본산업의 대응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15년 11월19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report/contents.asp?pyear=2015&ctype=g&grouping_seq=01040200_503
- 『한일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 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11월 9일
<http://www.hri.co.kr/storage/newReList.asp>
- 『[동향분석]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2015년 11월6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21340&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1&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은행, 성장률 및 물가 전망 하향조정』 한국은행, 2015년 11월2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21140&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한일무역의 특징과 한일FTA에 대한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5년 10월28일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DESC&sClassification=&actionName=&sNo=1379
- 『최근의 유가급락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15년 10월15일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12&state=view&idx=51680&recom=2033&ord=0

□ 일본 기관

- 『한중일 FTA교섭 전망과 아시아의 신통상질서 출현』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5년 11월 21일
<http://www.iti.or.jp/kikan100zoukan/100kiyokawa.pdf>
- 『전략적 인프라 시스템의 해외전개를 위해』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5년 11월18일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5/105.html>
- 『자동운전기술의 진전과 일본의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자동차산업)』 도레이경영연구소, 2015년 11월13일
http://www.tbr.co.jp/pdf/report/eco_g044.pdf
- 『TPP의 영향』 아시아경제연구소, 2015년 11월13일
<http://www.ide.go.jp/Japanese/Publish/Download/Tpp/pdf/001.pdf>
- 『일본의 장기정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경제산업연구소, 2015년 11월 10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dp/15e124.pdf>
- 『기रो에션 일본경제 아베노믹스 2.0』 소우지츠종합연구소, 2015년 11월7일
<http://www.sojitz-soken.com/jp/send/tameike/pdf/tame578.pdf>
- 『생산성 산업구조와 일본의 성장』 경제산업연구소, 2015년 11월6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pdp/15p023.pdf>
- 『일본 제조업의 산업집적과 동아시아 지역내 일본계 다국적기업의 서플라이체인글로벌화 경제적 요인 분석』 경제산업연구소, 2015년 11월6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15110005.html>
- 『산업 outlook : 주요 21개 산업 동향』 미쯔이시미토모 은행, 2015년 11월6일
http://www.smbc.co.jp/hojin/report/outlook/pdf/1_00_CRSDOutlook1510.pdf
- 『제조업의 국내회귀』 商工中金, 2015년 10월28일
http://www.shokochukin.co.jp/report/pdf/cb_20151027_01.pdf

2. 주요 경제 일정

<11월 실적>

일자	주요내용
1	• 韓日中 정상회담(서울)
2	• 韓日 정상회담(서울)
3~5	•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한큐슈경제교류회의(부산)
6	• 韓日 제3국 공동진출 세미나(주일한국대사관)
	• 9월 경지동향지수(내각부)
7	•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12	• 日中 기업가 대화
15	• G20 정상회담(터키)
16	• 중소기업정책심의회(경산성)
	• 7~9월 GDP 속보치(내각부)
18	• APEC 정상회담(필리핀)
19	• 미일 정상회담(마닐라)
	• 10월 무역통계 속보(재무성)
24	• 경제재정자문회의
25	• TPP 대책 수립
	• 11월 월례경제보고(내각부)
26	• 한일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주일 한국대사관)
27	• 산업구조심의회 신산업구조부회(경산성)
	• 10월 집중통계 발표
29	• 한중일 30인회의(서울)

<12월 예정>

일자	주요내용
9~10	•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31	• ASEAN 경제공동체 창설